

사설

군포교 지원계획 세우라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군불교위원회가 30일 대전 계룡대 무궁화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진다. 우리는 이 위원회가 군 불교 증흥을 위한 장기적인 조석 다지기 위한 모임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군승단은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에 창설되었다. 군복제가 뿌리를 내리고 군 선교에 열중하고 있을 때 낮은 감은 있었지만 군승제도 만들어 군 포교에 새장을 마련했던 것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군 포교에 전념했던 군승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불안한 종단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군 포교의 오늘이 가능했던 것이다.

군 포교를 전담하는 군승제도는 그 역할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우선 군승무원의 절대부족이다. 동국대 불교대의 중앙승가대 출신으로 그 자격요건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지원자의 절대 수가 부족하다. 둘째는 군승들의 근무 여건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군승 한명이 일개 사단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업무가 과중할 수밖에 없다. 셋째 신분이 불안하다. 군

승들이 군대의 일원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형식상으로는 종단에서 파견된 승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제대와 동시에 그들은 일반인이 되어 종단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넷째 군 포교에 종단의 장기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사실 그동안 군 포교는 종단과 무관하게 전개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이란 특수영역을 포교하는 만큼 그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건전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예비역 군법사와 유관 승려들, 그리고 현역 군승단 지휘부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포교원은 통제하는 기구가 아니라 지원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종단차원에서 군 불교 진흥을 위한 장기 계획과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포교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외에 다른 불교대학 출신들에게도 군승의 문호를 개방하는 일도 업무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군불교 위원회 30일 출범

포교전담 상설기구

체계 · 조직적 업무 기대

군 불교를 전담하는 종단의 공식기구가 출범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스님)은 군승의 날인 30일 오후 5시30분 대전 계룡대 무궁화 회관에서 '군불교위원회' 출범식을 갖는다. 이번 군불교위원회의 출범은 군승단 창설 33년 만에 처음으로 종단 산하에 군 포교를 위한 전담상설기구가 설치된다는 점에서, 향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군 포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종단 산하기구로서의 군불교위원회 설치의 지난해 3월 개정된 포교법 제7절 '군불교위원회는 군 포교 업무를 총괄하는 포교원 산하기구'라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군불교위원회는 군 불교 전반에 관한 행정 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산하에 상임회의 및 실무운영회의를 설치해 군 포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상시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따라서 군법사들은 예산확보나 후원회 조직 및 제반 행정업무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어, 포교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

이와 함께 군불교위원회는 올해 말부터 군법당 운영규정과 군승활동 평가 규정 마련, 군 불자 신도등록 사업을 벌여나가는 한편, 시행규정 및 세부 운영 계획은 출범 이후 점차적으로 논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군불교위원회 위원장은 아직 선인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포교법 제7절에 위원장 자격을 '군포교의 원력과 경력이 있는 현역 군승이 아닌 비구'로 명시하고 있

어 일단은 예비역 군승 중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포교원 박정규 계장은 "지난 2월 군승단 해체 이후 군 포교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아래 포교원과 군 포교 관계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군불교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며 "군 불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a.com



현대만평

김영민

힘 받는 군불교

신도교육에 달린 미래불교

사부 대중이 모두 각각의 위상을 지니고, 스님 뿐만 아니라 모든 신도들이 불교의 주체가 될 때 불교가 올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은 불교 증흥을 위한 대전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재가자들은 출가자들의 틀러리 역할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불교의 현실이기도 하다.

이런 경향은 출가자들이 사부 대중이라는 네 기둥이 바로 서야 불교가 바로 선다는 의식을 지니지 못하고, 출가자 중심으로 교단을 운영하는데서 오는 편의성에 안주한 탓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이한 생각은 재가자들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부처님의 높은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삶을 실현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아 버리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불교를 시대와 동떨어진 종교로 만들며,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떨어뜨리고 불교 교단의 힘을 위축시키고 마는 것이다.

그런 결과로 신도 수에 결맞지 않은 낮은 위상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불교의 모습이다. 그렇기에 한국불교의 대표적 종단이며 어느 종

단보다도 출가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계종에서 신도교육을 강화하기로 선언하고, 그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소식은 어느 소식보다도 반갑다.

조계종이 13일 가진 '신도기본교육 교재 고별 및 신도교육 캠페인 선언 포식'은 이제 질 낮은 신도 위에 편안히 군림하는 종단의 모습을 벗고 참된 사부대중의 교단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기본 교재를 펴내며, 지도자층 교안을 마련하고, 또 전문 교육을 위한 시행령을 확정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조계종의 신도교육에 대한 인식과 결의가 확고함을 말해주기에, 그에 거는 기대가 크다.

신도교육은 불교의 사활이 걸린 일이다. 그러하기에 탄탄한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캠페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모든 스님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은 스님들의 신도교육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일부터 시작하기를 당부한다.



◇진각종은 12-13일 총 554명에게 보살심선계를 수여했다.

진각종 보살심선계 554명 수계

청장년층 절반이상 차지

진각종은 12-13일 서울 탑주심인당과 대구 회락심인당에서 진기55년도 보살심선계 수계관정불사를 봉행, 서울계단에서 154명, 대구계단에서 400명 등 총 554명에게 보살심선계를 수여했다.

각해 총인을 비롯, 지회심 북선정 대중사들이 증명아사리로 참석하신 가운데 수계자들은 일점 갈마아사리로부터 금강선을, 도촌 전계아사리로부터 금강수를, 지광 교수아사리로부터 계첩을 정대해서 받고 부

처님 정법을 실천, 불퇴전의 정진으로 불도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수계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77명, 40-50대 190명, 20-30대 287명으로 청장년층이 전체 수계자 554명 가운데 절반이 넘어 진각종이 그동안 추구해 온 청장년층 대상 포교가 점차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도권 수계자수는 지난해(175명)보다 줄어든 반면 지방의 수계자 수는 지난해(320명)보다 12.5% 증가해 지방의 교화 활성도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숙 기자

승가학풍 주제 세미나 30일 중앙승가대 대강당

중앙승가대가 '승가학풍 수립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30일 오전 10시 학교 본관 4층 대강당에서 제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이 '승가학풍 수립의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기초강연을 하며, 김성철 교수(동국대 불교학)가 '불교학의 바람직한 방향-인문학과 불교학의 공통점과 차별성을 중심으로'에 대해,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가 '승가학풍의 사회과학적 의의'에 대해, 종석 스님(중앙승가대 불교학)이 '승가학풍이 승가교육에 끼친 영향'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한영우 기자

한글 대장경 보급 공로 동국대, 본사에 감사패

동국대학교 송석구 총장은 지난 16일 대장경을 읽으시다 대장경을 봉안함시다 캠페인을 통해 한글대장경 보급에 활기를 불어 넣은 공로로 현대불교신문사 김광삼 사장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임연태 기자

전화 한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현대불교를 구독하여 주시는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행의 동반자' 현대불교가 지로용지를 들고 은행에 가는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구독료 자동이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 구독료로 전화로 신청만 하시면 구독료가 자동으로 납부되어, 보다 편한 마음으로 현대불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독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좋은 점
 - 매월 은행을 찾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립니다.
 - 구독료 연체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원 절약의 효과도 있습니다.
 - 봉장에 구독료 납부 내역이 자동 기록되기 때문에 납부확인 이 명확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 · 해지 방법
 - ① 독자번호(성명,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주민등록번호, 이체 희망일자를 전화로 알려 주시면 하면 됩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셔도 다음달부터 구독료가 자동이체 되도록 신청 당일 구독료는 지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신청 및 문의 전화 : 02)737-0090, 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장인의 혼이 담긴 목조각 작품

성불조각원

- 전통 불교 목공예 전문 성불조각원은 모든 작품을 옛 전통기법으로 재현 합니다.
- 사찰에 필요한 모든 목조각을 주문 제작 합니다.

취급품목: 목불상, 사천왕, 16나한, 500나한, 법상, 가마, 불전함, 경상 등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번지
문의전화: 033-263-1102 • 017-379-0590
전국대리점 모집